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문학에서의 재해(災害)

- 「개구리 군 도쿄를 구하다(かえるくん、東京を救う)」를 중심으로 -

정승운*

sujeong@jnu.ac.kr

Contents

- I. 서론
- II. 개인적 시스템과 스케일
- III. 재이(災異)사상과 자연상관(自然相關)
- IV. 문령(文靈)과 상상력
- V. 결론

I. 서론

계속되는 대지진과 쓰나미 등의 천재(天災)와 경제 불황과 음진리교에 의한 지하철사탄사건, 후쿠시마원전사태 등의 인재(人災)에 대해 전후세대인 무라카미 하루키(이하 무라카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본고의 연구목적은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휘인 언령(言靈), 문령(文靈) 등의 애니미즘(自然神)적 사고가 일본인에게는 매우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이고,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인은 자기가 신던 양말이 헤어져 구멍이 나면 그냥 버리지 못하고 소금을 뿌려 정화(淨化)시키는 개인적 의식을 치른 후에 버린다. 신에게 재앙(祟る)을 입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집에 있는 화분의 식물에 물을 주면서 매일 대화를 나눈다. 오키모노(置物, 객실·床の間 등에 두는 장식물)와도 대화를 나눈다. 20-30년 된 집안의 냉장고가 덜거거리면 휴식을 취하도록 배려하여 전원 플러그를 뽑아준다. 날이 저문 후 산 아래의 터널을 지날 때는 산에게 죄송하다

*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부교수. 전남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연구원.

고 느낀다. 자연물과 인공물이 살아있는 영혼을 가졌다는 이러한 애니미즘적인 이야기는 책에 노골적으로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은 설마하고 생각하고 일본인이 그런 것을 믿을 리가 없다고 막연히 믿는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예술일 뿐이라고 믿고, 한국인에게는 왜 일본적 애니미즘을 상상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는다. 옆에 있는 일본인에게 물어 보았으면 한다. 정말로 믿는지를. 오히라이(お祓い)나 미소기(禊ぎ), 신사참배는 왜 하는지도 물어보았으면 한다.

1918년생으로 전전세대인 무라카미의 아버지 지아키(千秋)는 교토부 나가오카쿄(長岡京)시 아오(粟生)의 정토종 고묘지(光明寺) 주지 가문에서 태어났다. 1937년 9월 교토대학 문학부 국문학과를 졸업(졸업논문 『근세 하이쿠문학 연구』)하고 대학원에 진학했다. 무라카미는 무라카미류(村上龍)와의 대담에서, “정토종(淨土宗)¹⁾ 주지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욕망을 버리고 살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고 했다.²⁾ 히라노 준(平野純)(2008)은 『ゼロの樂園-村上春樹と仏教』(樂工社)에서 “아버지가 주지였던 무라카미의 작품은 불교적 세계관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정토종 주지 집 안이었던 무라카미는 자연스럽게 정토종의 영향을 받으며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염불 대신에 소설로 염불을 올리고자 했을 것이다.

옛날에는 죽음에 관한 스토리가 도처에 있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본래 힘든 곳이므로 죽고 나서 어떻게 행복하게 되는가 하고 죽은 다음만 생각했으므로 신란(親鸞)의 말을 듣고 모두 감격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을 사는 것에 모두 너무 열심이어서 죽는다는 것이 맹점이다.³⁾

1) 일본의 불교 종파의 하나로 호넨(法然, 1133-1212)을 개조(開祖)로 하고 본존(本尊)은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 서방 정토에 있는 부처로 대승 불교 정토교의 중심을 이루는 부처다. 윤회로 생사만을 거듭하고 있는 모든 중생을 생사 없는 열반으로 이끌겠다는 큰 뜻을 품고 성불한 후 극락에서 사람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 부처를 염불하면 죽은 뒤에 극락에 간다고 함)이다. 교의(教義)는 경전을 외우지 않아도 되며 오로지 나무아미타불(아미타불에 귀의하겠다)만을 염불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스승인 호넨을 계승한 신란(親鸞)은 사후 정토진종의 개조로 받아들여졌다.

2) 히라노 요시노부(平野芳信) 저, 조주희 역(2012)『하루키, 하루키』 지학사, pp.16-17

3) 무라카미 하루키·가와이 하야오(2003)『가와이 하야오(河合隼雄)씨와의 대화』 언더그라운드

번뇌를 버리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 신란(親鸞)은 번뇌라는 것은 이제 없어졌다
고 생각해도 여전히 있다고 했다.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했더니 아직 있다는 것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것을 철저히 하고 있었으므로 신란(親鸞)은 거기까지 간
것이다. (중략) 천재적인 사람은 애초부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신란(親鸞)은 “제자는 두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나중에 저렇게 큰 교단이
생겨 버렸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종교성의 추구라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좋
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⁴⁾

순수한 종교성을 위해 출발할 지라도 집단이 되면 욕망과 번뇌가 발생하므로
어디까지나 개인으로 머물면서 종교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후술하는
각주 22번 참조).

II. 개인적 시스템과 스케일⁵⁾

다나베 아키라(田辺章)는 『地震のあとで、焚火をおこす-村上春樹『アイロン
のある風景』が映し出すジャック・ロンドン『焚火』』(東洋大学人間科学総合研究
所紀要』8, 2008, pp.152-153)에서 무라카미가 인용한 런던의 『모닥불』은 극지

드』에 대하여, 『村上春樹 全作品1990-2000⑦』講談社 所収) p.207

4) 무라카미 하루키·가와이 하야오(2003)『가와이 하야오씨와의 대화-『悪』을 껴안고 산다』(『
村上春樹 全作品1990-2000⑦』講談社 所収) p.230

5) 스케일이 큰 이야기는 무라카미의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 인식할 수 있다.

‘새로운 방향에서 온 말, 그러한 말로 이야기되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이야기를 淨化하기
위한 다른 이야기)’, ‘아사하라(麻原)의 황당무계한 이야기(物語)를 추방할 수 있는 진지한 힘
을 갖는 이야기(物語)’, ‘자신의 내부 쓰레기와 결손을 하나하나 질실하게 끝까지 파고드는’
이야기, ‘어떠한 제도=시스템에 대해 인격의 일부’를 내맡기지 않은 이야기, ‘당신이 꿈꾸는
꿈은 진정으로 당신의 꿈이었던가? 그것은 언젠가 터무니없는 악몽으로 전환하여 갈지도 모
르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꿈이 아닌 이야기. ‘상대의 입장이 되어 매사를 생각하고 상대의 시
선으로 매사를 보고 상대의 마음으로 매사를 느끼도록 힘’을 쓴 이야기.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이야기는 하나의 “기호”로서의 단순한 이야기로 충분하다. 전쟁에서 병사들이 받는 훈장이
순금이 아니더라도 좋은 것과 같다. 훈장은 그것이 훈장이라는 공동인식을 갖고 있으면 충분
하고 값싼 양철로 만든 거라도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목표가 없는 악몽(目じるしのない悪
夢)』(『村上春樹全作品1990-2000⑥アンダーグラウンド』所収, 講談社, 2003, pp.641-657).

따라서 다른 사람이 만든 이야기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고, 진정으로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
었을 때 비로소 스케일이 큰 이야기라 할 수 있겠다.

에서 자연이라는 ‘압도적인 것’에 대항할 수 있는 희망의 이야기(物語)라고 하고 있다. 2009년 2월 15일 무라카미의 예루살렘상 수상 스피치 『항상 계란 편에(常に卵の側に, Always on the side of the egg)』에서의 ‘계란’은 ‘모닥불’이고 ‘벽’은 ‘압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무라카미는 아버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작년 나의 아버지는 90세로 작고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교사를 은퇴하고 간혹 시간제근무로 스님으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대학원 재학 중 육군에 소집되어 중국의 전쟁터로 보내졌습니다. 전후에 출생한 나는 매일 아침 아침식사 전에 우리 집 불단 앞에서 아버지가 길고 깊은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에게 왜 그런 일을 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그 전쟁으로 돌아가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적과 아군 관계없이 돌아가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단 앞에 정좌한 아버지의 등을 물끄러미 바라보면 나는 아버지의 주위를 떠돌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심과 동시에 내가 결코 짐작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기억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의 그늘에 숨어 있는 죽음의 존재는 지금도 역시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아주 작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⁶⁾

아버지가 중일전쟁에서 전사한 아군과 적군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느낀 아버지의 어두운 그림자는 무라카미 하루키로 하여금 중국요리

6) My father died last year at the age of 90. He was a retired teacher and a part-time Buddhist priest. When he was in graduate school, he was drafted into the army and sent to fight in China. As a child born after the war, I used to see him every morning before breakfast offering up long, deeply-felt prayers at the Buddhist altar in our house. One time I asked him why he did this, and he told me he was praying for the people who had died in the war.

He was praying for all the people who died, he said, both ally and enemy alike. Staring at his back as he knelt at the altar, I seemed to feel the shadow of death hovering around him.

My father died, and with him he took his memories, memories that I can never know. But the presence of death that lurked about him remains in my own memory. It is one of the few things I carry on from him,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를 먹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무라카미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슴이 철렁해지는 중국에서의 경험담을 들려 준 것을 기억하지만,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기억에 없다고 했다. 아버지가 목격한 건지, 아니면 직접 한 일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어쨌든 아주 슬펐던 것만 기억난다고 했다. 하루키는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말투라기보다는 별것 아닌 이야기를 하듯 억양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쩌면 그게 원인이 돼서 지금도 중국 요리를 못 먹지도 모르겠다.”고도 했다.

아버지께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더 물어보지 그랬냐고 하자, 무라카미는 “묻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건 아버지에게도 마음의 상처임에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도 마음의 상처인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사이가 좋지 않다. 아이를 만들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대답했다(위의 책, p.161).

“가슴이 철렁해지는 중국에서의 경험담”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이어서 무라카미는 예루살렘상 수상 스피치「항상 계란 편에(常に卵の側に)」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우리들은 모두 각각이 살아 있는 영혼을 실체로 갖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그것을 조금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스템’이 우리들을 이용하는 것을 결코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에게 의사(意思)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이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시스템’을 만들었으므로⁷⁾

전전의 천황제 시스템이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무라카미의 아버지 지아키와 동료 병사들이 자신들의 영혼과 의사를 천황제 시스템에 송두리째 내맡기고 저지른 폭력에 대한 진심 어린 자성의 말이기도 하다. 전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전전에 저지른 폭력의 그림자는 전후 세대에게 그대로 계승되어 죄의식과 저주에 대한 공포로 남아 여전히 일본인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무라카미는 이러한 시스템에 빛을 쬐이고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개인이 스스로의

7) Each of us possesses a tangible, living soul. The System has no such thing. We must not allow The System to exploit us. We must not allow The System to take on a life of its own. The System did not make us: We made The System.

영혼을 되찾아 악을 제거해 가기를 염원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스템은 어떤 의미일까? 우선 『일본야후사전(<http://dic.yahoo.co.jp/>)』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제도, 조직, 체계, 계통, 방법, 방식(デジタル大辞泉, 小学館).
- ② 대상을 부분이 결합해서 구성되는 전체로서 인식할 때 그것을 시스템이라 하고 부분을 요소라 한다(世界大百科事典 第2版).
- ③ 복수의 기능이 모여 상호 관계하면서 전체로 정리된 기능을 실현하는 존재. 인터넷도 하나의 거대 시스템이고 국가나 기업도 인체도 일종의 시스템(朝日新聞出版 『パソコンで困ったときに開く本』).
- ④ 개개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조합되어 종리된 전체, 체계, 전체를 통일하는 짜임새, 방식, 제도(大辞林第三版, 三省堂).
- ⑤ 지휘·통제 시스템. 軍의 각급 지휘관이 예하부대의 활동을 계획·지령하고, 그 행동을 감독·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 통신, 수순, 요원 등으로 구성된 체계의 총칭. 군대의 활동에서 지휘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 적시·적절한 작전계획, 지령, 통제가 아주 중요한데 병기의 진보와 다양화에 따른 전투공간의 확대, 전투양상의 복잡화, 다양화, 전투 추이의 급속화 등의 경향과 군 조직의 고도 전문분화에 따라, 상황판단, 계획, 지령, 감독, 통제에 관한 다종다량의 정보처리(수집, 분석, 평가, 제시, 전달 등)를 어떻게 적시에 적절하게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世界大百科事典 第2版).

그러면 무라카미는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목표가 없는 악몽(目じるしのない悪夢)』(『村上春樹全作品1990-2000⑥アンダーグラウンド』所収, 講談社, 2003)을 통해서 살펴보자. 무라카미는 ‘커다란 재해가 일어났을 때 조직이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이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다’고 한다. ‘사실을 통합하고 혈육 화하는 종합적 관점을 우리가 자기 속에 갖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의미하게 세분화되고, 범죄 가십 화되고 그대로 역사의 어둠으로 사라져 간다’고 한다.

또한 무라카미는 ‘옴진리교라는 “존재와 행위”를 순수한 남의 일로 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기형적인 것으로 강 건너에서 쌍안경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우리들은 어디로도 갈 수 없게 된다. 비록 생각하는 것이 약간 불쾌함을 수반하더

라도 자기라는 시스템 내에 혹은 자신을 포함하는 시스템 내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것으로 “매사”를 검증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들의 “이쪽” 영역에 파묻혀 있는 그 열쇠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은 한 없는 강 건너 일이 되고 그곳에 있을 의미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미시화해 가지 않을까?”라고 한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비뚤어진 자화상으로 내버려두면 느닷없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움진리교는 나와 서로 “맞거울”이고 “철(凸)과 요(凹)”이고 “정(正)과 부(負)”이고 “빛과 그림자”로서 그림자가 곧 언더그라운드라는 것이다. ‘시스템(고도관리사회)은 적합하지 않은 인간은 고통을 느끼게 하여 개조시킨다.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병자”로 취급되고 적합하게 하는 것은 “치료”로 된다. 이리하여 개인은 자율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힘을 파괴당하고 시스템이 강요하는 타율적 힘에 편입된다. 자율적 힘을 추구하면 “병자”로 간주된다’, ‘자기 자신만의 가치를 내걸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해도 세상 사람이 여간 해서 그것을 허용해 주지 않는다’, ‘개인의 자율적 힘은 본래는 타율적 힘의 맞거울질로 생겨나는 것’으로 크로스 레퍼런스(cross-reference)적인 것이다. 움진리교와 같은 존재는 자아의 “음과 양”으로서 자발적 인력으로 끌어당겨 생긴 것이므로 자아의 “음과 양”이 모두 드러날 때 비로소 밸런스를 취한 “자아의 객체화”라 할 수 있다.

이어서 무라카미는 ‘병 속에 아라비안나이트의 괴물’이 간혀 있듯이 ‘아사하라라는 그 병에 종교라는 라벨을 붙였다’. 신자들은 ‘자아라는 귀중한 개인의 자산을 아사하라 쇼코라는 “정신은행”의 대금고에 열쇠마저 맡기고 맡았다’. ‘충실한 신자들은 스스로 자유를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세속적 가치판단 기준(상식)을 버렸다’. ‘미국의 작가 러셀 헉스는 소설 『대륙표류』에서 “자아보다 큰 힘을 가진 것, 예를 들면 역사 또는 신, 무의식이라는 것에 몸을 맡길 때 사람은 너무나 쉽게 눈앞에 일어난 것의 맥락을 잃어버린다. 인생이 이야기로서의 흐름을 잃어버린다(구로하라 도시유키, 黒原敏行역)”고 했다. ‘이야기는 논리도 윤리도 철학도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계속 꾸는 꿈이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존재다. 당신은 주체임과 동시에 객체다. 당신은 총합이고 동시에 부분이다. 당신은 실체임과 동시에 그림자다. 당신은 이야기를 만드는 “공장”임과

동시에 이야기를 체험하는 “플레이어”다. ‘고유의 자아를 갖지 않고 고유의 이야기를 만들 수 없다. 엔진 없이 자동차를 만들 수 없는 것과 같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곳에 그림자가 없는 것과 같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누군가 다른 인간에게 자아를 양도해 버렸다.’

하지만 음진리교사건에 대해 ‘전문가를 모아 공정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숨겨진 사실을 해명하고 주변 시스템의 철저한 세척을 해야 한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는지 무엇이 조직의 정상적인 대응을 저해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무라카미의 말 속에는 만주에서 벌어진 러시아와의 노몬한전쟁에서의 군 수뇌부의 지휘·통제 시스템에 대한 비판 발언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일본인의 자아 양도 경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뿌리 깊은 집단성향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효순(2007)『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태엽감는 새(ねじまき鳥クロククル)』론-현대일본인의 상실감과 노몬한 체험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는 일본병사에 편향된 무라카미의 서술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무라카미는 한신대지진과 음진리교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자는 말할 것도 없이 회피할 도리가 없는 자연현상이고, 후자는 인위적인 범 죄행위이다. 원리적으로 말하자면 그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양자는 결코 무연한 것이 아니다. 음진리교의 괴수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는 한신대진재에 고무되어 지금이 그야말로 일본이라는 국가의 기반을 흔들기 위한 또는 잘하면 그것을 전복시키기 위한 호기라고 믿고(또는 그러한 망상에 빠져), 지하철의 사린가스 공격을 기도했다. 이 둘은 틀림없이 인과관계를 갖는 사건이다. 또 한 가지 이 사건들은 말하자면 지하에서 우리들의 발아래 깊은 곳으로부터 다가온 것이다. 지진은 지하의 마그마 활동에 의해, 또한 그것이 초래하는 지층의 비틀림에 의해 일어난다. 모든 것은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지하의 어두운 장소에서 시간을 들여 몰래 예정되고 결정되어 간다. 그리고 음진리교는 사람들의 의식의 하부(Under Ground)를 파악하고 조직화함으로써 세력을 펼쳐왔다. 아사하라(麻原)는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사회 아래에 망상에 의해 만들어진 지하의 제국 같은 것을 쌓아왔다. 그리고 교단이 습격 장소로 선택한 곳은 바로 지하철 차량이었다. 그와 같은 집요까지 한 ‘지하성’은 나오서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우리 사회가 내포하고 있던 시한폭탄이고, 그것들은 거의 같은 시각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⁸⁾

“그것들은 우리 사회가 내포하고 있던 시한폭탄이고, 그것들은 거의 같은 시각으로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한신대지진과 옴진리교사건이다. ‘원리’적으로 말하자면 그 둘 사이에는 자연현상과 인위적 범죄행위이지만, 양자는 결코 무연한 것이 아니어서 틀림없이 인과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들은 모두 “지하에서 우리들의 발아래 깊은 곳으로부터 다가온 것”으로 “모르는 사이에 지하의 어두운 장소에서 시간을 틀여 몰래 예정되고 결정”된다는 것이다.

버블경제가 파탄 나고 거대한 지진이 거리를 파괴하고 종교단체가 무의미하고 잔인한 대량살상을 저질러, 한 때는 눈부셨던 전후 신화가 소리를 내며 연달아 붕괴해 가듯이 보이는 가운데, 어딘가에 있을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며 조용히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우리는 자신들의 이야기(物語)를 계속 말하지 않으면 안 되고, 거기에는 우리를 따스하게 격려하는 ‘도덕’과 같은 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같은 책, p.275)

새로운 가치와 도덕을 이야기(物語)라는 상상을 통해 획득해야 한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낡은 가치와 부도덕한 망상(아버지 세대에 저질렀던 천황제 일체의 낡고 부도덕한 만행)이 전후 신화의 붕괴(버블경제 파탄, 지진, 사이버 종교단체)를 초래했다고 암암리에 저자 무라카미는 역사적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라카미는 전사자의 “얇고 약한 껍질에 덮인 단 하나밖에 없는 매우 소중한 영혼”의 존엄성과 함께 이에 대한 죄의식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우치다 다쓰루(内田樹)(2010)는 『사악한 영혼의 평정법(邪惡なもの鎮め方)』(木星叢書, 바시리코)에서 ‘사악한 영혼’과 조우하여 인간이 어떻게든 대처해야 하는 극한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영적체험과 영적 감수성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했다.

8) 『解題『神의 아이들은 모두 춤춘다』』(『村上春樹全作品1990-2000③ 短篇集Ⅱ』講談社 2003, pp.269-270)

‘사악한 것’에 대한 이야기(物語)는 고래로 무수하게 존재합니다. 그 어느 것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올바른 선택을 한” 주인공이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내 자신이 발견한 답은 ‘예의 바름’과 ‘높은 신체 감도’, ‘Open Mind’였습니다.(책 표지 띠)

‘높은 신체 감도’, ‘Open Mind’는 영적 감수성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우치다는 『IQ84』의 경우 ‘사악한 것’은 ‘사악하고 강대한 아버지’이고 아버지의 주술과 주문(나쁜 이야기)으로 인한 속박을 무효화해야 한다(위의 책, pp.22-23)고 한다.

무라카미는 스케일이 큰 이야기(物語)로 이러한 공포를 에워싸서 그것을 작은 이야기(物語)로 만들어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선악의 승부라기보다는 스케일의 승부라고 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일본만큼 종교적인 나라는 이 세계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움진리교도가 하는 일은 소설가가 하는 일과 비슷하다. 소설을 쓰는 것도 종교를 추구하는 것도 겹치는 부분이 많다. 아사하라의 이야기로 굳어진 것을 녹이려면 다른 이야기를 가져와야 한다. 이야기는 영혼에 스며들어간다. 큰 이야기로 감싸서 치료한다는 것은 결국 선악의 승부라기보다는 스케일의 승부가 된다.⁹⁾

천황이 예수를 능가하는 현인신이라는 천황제의 국가신도 시스템은 후술하는 움진리교의 아사하라(麻原)교주가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고 한다. 소설을 쓰는 것은 천황제 시스템이나 움진리교의 이야기(物語)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설과 천황제나 움진리교와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집단의 시스템인가 개인의 시스템인가이다. 집단의 시스템에는 영혼이 없고 개인의 시스템에는 영혼이 있다. 개인의 시스템이 만든 이야기(物語)의 스케일이 집단이 만든 이야기(物語)의 스케일보다 크면 된다고 무라카미는 말하고 있다. 사리사욕의 아욕에 집착하여 빛과 그림자의 밸런스를 잃어버린, 그림자에 치우친 스케일이 작은 이야기(物語)에 비해, 『개구리 군 도요를 구하다』는 가타기리처럼

9) 무라카미 하루키·가와이 하야오(2003)『가와이 하야오(河合隼雄)씨와의 대화-『언더그라운드』에 대하여』(『村上春樹 全作品1990-2000』講談社 所収) p.208

많은 사람의 인명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개구리 군과 함께 지렁이 군과 싸운 이야기와 같은 음과 양의 스케일을 갖춘 이야기(物語)인 것이다.

우리들은 대부분의 경우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고 미디어의 말을 사용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출구가 없는 미궁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주인공 오카다 도루가 했듯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단지 혼자서 깊은 우물 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자기 자신의 시선과 자기 자신의 말을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10)

무라카미는 이어서 우리들은 “아사하라적인 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가 쓰고자 하는 이야기(物語)의 골자”라고 했다.

Ⅲ. 재이(災異)사상과 자연상관(自然相關)

재이사상은 고대 중국 음양가의 음양오행사상이 유교에 들어와 하늘과 사람이 음양오행에 의해 서로 감응하여, 의지를 가진 하늘이 인간 행위의 선악에 따라 자연재해나 이상 현상을 일으켜 사람에게 충고를 한다는 유교 사상이다. 음양오행사상은 음양사상과 오행사상이 통합된 것이다. 음양사상은 모든 사상이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음과 양이라는 상반된 형태(명암, 천지, 남녀, 선악, 길흉)로 존재한다는 사상이다.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자연과 인간, 곧 하늘과 사람 사이에 내면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상이 있었는데 이것이 더욱더 발전해서 인간의 행위가 자연현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른바 천인상관(天人相關)의 사상을 낳기에 이르렀다. 한국에도 ‘천벌을 받을 놈’ ‘벼락을 맞을 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이 노했다’ 등의 말이 있다. 이러한 재이사상은 중국의 율령제와 함께 일본에 전해진다.

10) 村上春樹·청취자 손 월시(2005)『소설가로서 필요한 것은 개별 의견이 아니라 그 의견이 확실한 기반을 두고 설 수 있는 개인적 작화(作話) 시스템입니다』『꿈을 꾸기 위해 매일 아침 나는 잠에서 깡니다 村上春樹 인터뷰집 1997-2011』(2012) 所収 文芸春秋, pp.384-385

야마시타 가즈아키(山下克明)(1996)는 『平安時代の宗教文化と陽道』(岩田書院)에서 재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국 전한시대에는 천변의 여러 현상을 천자의 부도덕 때문에 하늘이 내리는 경고로 여기는 재이사상이 유교의 교설과 일체화 되었다. ‘재’는 가뭄·홍수·기근·병충해·화재·병란 등의 재해, ‘이’는 일식·지진·추위·더위와 동식물의 이상을 포함하는 괴이·변이 현상을 일컫는다. 재이는 지배자의 부덕·실정에 하늘이 감응해서 지배자에 대한 충고, 또는 징벌로 내려진 것으로 해석했다. 재이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이에 대해 지배자는 덕치·선정으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본은 이러한 중국의 재이사상을 율령제도의 수입과 함께 계승하는데 여러 재해를 위정자의 부덕에서 초래된 하늘의 꾸지람으로 보고, 신과 영의 재앙·분노로 여기는 관념도 강하여 빈번하게 신사에 봉폐를 하며 여러 호국경전을 독송하여 이것을 제거하려 했다.¹¹⁾

중국의 재이사상에서의 하늘은 추상적인 데 비해, 일본에서는 눈에 보이는 대자연의 구체적인 하늘이다. 대자연에 서려 있는 애니미즘의 ‘신과 영’이 재앙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으로 여기는 관념이다. 중국이 천인합일(天人合一,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의 천인상관이라면 일본은 자연합일(自然合一,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의 자연상관이라 할 수 있다. 재이사상의 일본적 수용인 것이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도호쿠대지진과 쓰나미에 대해 이시하라 신타로 전도쿄도지사는 “일본인의 정체성은 아욕(자기만의 이익이나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이다. 이 쓰나미를 잘 이용해서 아욕을 한번 씻어낼 필요가 있다. 역시 천벌이라고 생각한다.¹²⁾”고 발언한 후 언론의 질타를 받고 “철회하고 깊이 사죄한다.”고 했다(朝日新聞, 2011. 3. 15 12시 48분). 이 발언의 배경에는 재이사상이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 고대부터 일본에서는 천변지이가 발생하면 지도자의

11) 北原糸子編, 水野章二執筆担当(2006)『日本災害史』吉川弘文館, pp.97-98에서 재인용.

12) 日本人のアイデンティティーは我欲 この津波をうまく利用して我欲を1回洗い落とす必要がある。やっぱり天罰だと思う。

영력이 쇠하였으므로 죽임을 당해야 했고 생명력이 넘치는 새로운 지도자로 바뀌어야 했다. 이것을 염려한 이시하라는 역발상으로 국민이 부정(不淨)하기 때문이라고 선수를 친 것이다. 이시하라는 국민들이 지도자의 부덕이라 여길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개구리 군 도쿄를 구하다(かえるくん、東京を救う)』¹³⁾에서 무라카미는 일본의 버블경제의 원인인 부실대출과 그 대출을 갚지 않으려고 계획적으로 도산시키는 회사, 그 배후의 폭력단과 유력 정치인의 부도덕을 지진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유력 정치인의 실정과 부도덕이 지진을 부른다는 측면에서 재이사상이 농후하게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지진을 막을 방법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 지도자가 가타기리(片桐)인 것이다.

키 160센치로 야윈 편인 가타기리는 동경안전신용금고 신주쿠지점 용자관리과 계장보좌로 주로 빌려준 돈의 회수를 담당하고 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자 두 다리로 섰을 때 키가 2미터가 넘고 말을 하는 개구리 군이 가타기리를 기다리고 있다. 가타기리는 처음에는 개구리 군을 폭력단 일원으로 의심했지만, 개구리 군은 가타기리를 찾아온 목적이 지진으로 인한 도쿄의 파멸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지진은 지렁이 군이 일으킨다. 지렁이 군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지렁이 군은 잠을 방해하는 주위의 소음과 떨림에 감응하여 잠이 깨면 화가 나서 엄청난 폭력을 일으키고 만다. 일본인이 가장 우려하는 러시아워에 일어나는 지진은 교통기관의 탈선, 전복, 충돌사고로 인한 고속도로와 지하철의 붕괴, 고가 전동차 추락, 탱크로리 폭발, 빌딩이 쓰레기 덩어리가 되어 사람들을 짓몽갠다. 순식간에 도쿄는 악의 소굴이 되고 지옥으로 변한다.

개구리 군은 가타기리에게 공포를 갖지 않는 최고의 선인 인간의 오성(悟性, 対象을 이해하는 능력)과 자신이 힘을 합치면 지진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둘은 깊은 어둠의 현실 속에 빛을 비춰 어둠을 퇴치한다.

개구리 군은 가타기리의 환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행동하고 그 효력을 발휘하는 살아 있는 실재라고 한다. 개구리 군이 폭력단을 위협하여 그

13) 村上春樹(2003)『村上春樹全作品 1990-2000 3 短篇集Ⅱ』講談社 所収, pp.197-221, 初出『新潮』新潮社, 1999. 12

들 스스로의 상상력으로 정신적인 공포를 느끼게끔 하자, 폭력단은 “개구리 군에게 부탁해서 이제 나에게 오지 않게 해 달라”고 가타기리에 애원한다.

개구리 군과 가타기리가 오성의 힘으로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것은 책임과 명예의 문제이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지하로 들어가 지령이 군과 맞선다는 것이 버블경제에 맞서고 지진에 맞서고 나아가서는 폭력과 공포와 맞선다는 것을 가타기리가 이해했다는 의미이다.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싸움이다. 싸움에 져서 목숨을 잃더라도 아무도 동정해 주지 않고, 이기더라도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는다. 개개인의 외롭고 정의로운 용기가 요구되는 것이다.

가타기리와 개구리 군은 발 밑 저 아래에서 그런 싸움이 있었다는 것조차 아무도 몰라주는 고독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즉 평범한 사람들 개개인이 정직과 용기를 갖고 오성의 상상력으로 공포를 잊고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머리는 대머리이고 배가 나오고 평발에 당뇨병도 있고 일은 조금 잘 한다고 인정받지만, 직장에서 존경은 받지 못하고 사생활에서는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 평범한 가타기리. 말 주변도 없고 부끄럼을 타서 친구를 만들지도 모르며 운동신경은 제로에 음치이고 눈도 나쁜 그저 자고 일어나 밥 먹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지도 모르는 형편없는 인생의 가타기리에 대해 개구리 군은 “당신 같은 사람만이 도쿄를 구할 수 있고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 도쿄를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무라카미는 「태국(タイランド)」에서

그녀는 자기가 서서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인식했다. 몸속에 하얗고 딱딱한 돌이 들어 있는 것을 인식했다. 비늘투성이 녹색 뱀이 눈에 띠지 않는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을 인식했다. 태어나지 않았던 아이를 생각했다. 그녀는 그 아이를 말살하고 바다에 없는 우물에 처넣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한 남자를 30년간에 걸쳐 증오했다. 남자가 고민에 몸부림치다 죽을 것을 바랐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바닥에서는 지진조차도 바랐다. 어느 의미에서는 그 지진을 일으킨 것은 나였던 것이다.¹⁴⁾

14)村上春樹(2003)『村上春樹全作品 1990-2000 3 短篇集Ⅱ』講談社 所収, p.192

라 하고 있다. 여자는 자신의 증오가 지진을 일으켰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에서의 재해에는 인간의 잘못을 자연이 감응하여 일으킨다는 재이사상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개구리 군 도쿄를 구하다(かえるくん、東京を救う)』에서 지렁이 군은 ‘그저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울림이나 떨림을 몸에 느끼고 하나하나 흡수하며 축적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대부분은 뭔가의 화학작용에 의해 증오라는 형태로 치환’된다고 한다. 지렁이 군이 인간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데서 기인한 폭력의 소리와 떨림에 감응하여 증오를 일으켜 지진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하필이면 한국계 조직폭력단과 중국계 마피아도 등장한다. 부정(不淨)한 인간들인 셈이다.

신주쿠 가부키초(新宿歌舞伎町)는 폭력의 미궁과 같은 장소다. 예로부터의 야쿠자도 있고 한국계 조직폭력배도 얽혀있다. 중국인 마피아도 있다. 총과 마약이 넘쳐난다. 다액의 돈이 표면에 나오지 않고 어둠에서 어둠으로 흐른다. 사람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일도 드물지 않다. 가타기리(片桐)도 변제를 독촉하러 갔다가 몇 번인가 야쿠자에게 에워싸여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

야쿠자, 한국계 조직폭력배, 중국인 마피아와 같은 더러운 인간들이 일으키는 소란한 소리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식이다.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뿌린다는 것과 유사하지 않은가? ‘지렁이 군은 땅 밑에 살고 있습니다. 거대한 지렁이입니다. 화를 내면 지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지금 지렁이 군은 심하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라고 개구리 군은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구리 군은 ‘지렁이 군에 대해서 개인적인 반감이나 적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를 악의 화신으로 보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한 존재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둠에 편중된 빛을 보지 못하는 언밸런스 상태의 인간들의 행위가 문제가 된다.

양친이 작고한 후 당신은 아직 10대였던 남동생과 여동생을 남자 손 하나로 길러내고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 뒷바라지까지 했다. 그 때문에 자기 시간과 수입을 크게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당신 자신은 결혼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도 남동

생과 여동생은 당신의 뒷바라지를 받았던 것에 조금도 감사해 하지 않는다. 한 가닥도 고마워하지 않는다. 역으로 당신을 경시하고 은혜를 모르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남동생과 여동생의 배은망덕한 행위들이 또한 지령이 군에게 전달된 것이다. 개구리 군은 가타기리에게 지령이 군과의 싸움은 자기가 할 테니 단 하나 싸움터에서 ‘개구리 군, 힘내라. 괜찮다. 너는 이긴다. 너는 바르다’라고 말을 걸어 주는 언령(言靈)의 힘이 필요하다고 한다.

IV. 문령(文靈)과 상상력

일본인은 하늘에는 기만 있고 음이 없으므로 하늘이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했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곧 천지의 말씀으로 믿었다. 사람은 자연신을 대변하므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내용이 그대로 실현된다고 믿었다. 말(言葉)에 영적인 힘이 깃들어 있어 언혼(言魂)이 존재한다고 믿어왔다. 한국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지만 일본의 언령(言靈) 신앙에는 비할 바가 못될 정도로 믿음의 강도가 약하다. 만물에 신이 있으므로 말에도 글에도 신이 깃든다는 애니미즘적 사상이 언령(言靈) 신앙이다.

헤이안(平安) 귀족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와카를 읊어 와카에 깃든 영적 힘 즉 언령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준다고 믿었다. 이야기(物語)에도 신령이 깃들어 있고, 현대의 소설이나 시에도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일본인은 믿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은 일본의 언령(言靈) 신앙이 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고토다마(言靈)란 일본에서 말(言葉, 언어)에 머문다고 믿는 영적인 힘을 이른다. 언혼이라고도 쓴다. 고토타마로 읽는 언령은 삼라만상이 이것에 의해 성립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50음도의 고토타마의 법칙. 이 법칙에 대한 학문을 언령학이라 한다. 목소리로 낸 말이 현실의 사상에 뭔가 영향을 준다고 믿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불길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여겨졌다. 그 때문에 神主가 신 앞에 告하여 비는 고대어의 축문(祝文)인 노리토(祝詞)를 올릴 때에는 절대로 오독이 없도록 주의하였다. 결혼식 등에서의 꺼려지는 말도 언령의 사상에 근거한 것이다. 일본은 ‘언혼의 힘으로 행복을 부르는 나라(言靈の幸はふ国)’로 믿었다. 고대에 ‘언(言)’과 ‘사(事)’가 동일 개념이었던 데서 유래한다. 자기의 의지를 확실하게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고토아게¹⁵⁾’라 하고 그것에 자신의 자만심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나쁜 결과를 부른다고 믿었다. 예를 들면 『고지키(古事記)』에서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倭建命)가 이부키야마(伊吹山)산을 올랐을 때 산신의 화신을 만났는데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는 이것이 신의 사자이므로 돌아가는 길에 퇴치하겠다고 고토아게를 했다. 그런데 그 안에 미코토의 자만심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미코토는 신의 재앙을 당해 죽었다. 즉 언령사상은 만물에 신이 머문다는 단순한 애니미즘 사상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도 보여주는 것이었고, 본래 선량한 것에 쓰였다.

사악한 사상에 관해서는 ‘고토카에¹⁶⁾’ 의식으로 전환·변환하여 선량한 것으로 바꾼다. 아주 바른 마음을 갖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언령이 자연 발동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용하여 고토카에를 하고 보다 선량하고 높은 정신성을 일으켜 유지된다.

‘언령’(<http://ja.wikipedia.org/wiki/%E8%A8%80%E9%9C%8A>, 최종검색일 2012. 4. 5)

일본에서는 샤머니즘을 조령이나 정령과 접촉하고 교류하는 능력을 갖는 능력자를 중심으로 제도화되고 체계화된 애니미즘(자연계의 모든 사물에는 영혼이나 정령이 깃들어 있고 모든 현상은 그 의미나 작용에 의한 것)으로 여긴다. 일본의 샤머니즘은 한국의 샤머니즘이 애니미즘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어의 ‘모노(もの, 物)’에는 요괴·원령 등 불가사의한 영력을 갖는 존재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ものに憑(つ)かれる”는 “요괴·원령에 빙의되다”의 뜻이고 애니메이션 『원령공주(ものの怪姫)』는 ‘원령에 빙의된 공주’를 뜻한다. 이야기(物語)도 모노(불가사의한 영력을 갖는 존재)가 이야기를 하다는 뜻으로, 작

15) 소리 높여 말함. 言挙げ.

16) 재앙을 복으로 바꾸기 위해 하는 말. ことかえ.

자에 빙의된 모노는 말을 하지 못하므로 작자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여 모노의 뜻을 이룬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소설은 모노의 영감 (inspiration)을 받아 써내려가는 종교적 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소설을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전이나 성서에 해당한다. 소설의 영은 인간의 영혼으로 스며 든다고 믿는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정토종의 염불이 아닌 소설로 ‘고토카에’를 꺾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자체에는 그 사건을 막을 억제 백신이 없었지만, 『언더그라운드』와 같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物語, 言靈) 속에서 확실한 잠재적인 힘을 느낄 수 있고,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쌓아올려 가면 거기에는 뭔가 큰 세력이 태어나, 개개의 힘이 사회적인 힘이 되어 자연 치유력으로 그것을 정화하려는 힘, 즉 ‘고토카에’의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무라카미는 『가와이 하야오(河合隼雄)씨와의 대화-『언더그라운드』에 대하여』에서 움진리교의 교주 아사하라(麻原)에 대해 “아사하라 자신이 만든 이야기(物語)에 자신이 희생”되어 버렸다. 이제까지 ‘죽음에 관한 스토리’라는 것이 세상에 너무 없었으므로 아사하라와 같은 단순한 이야기(物語)도 대단한 힘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했다. 이야기에는 의사체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스케일이 단순한 이야기에든 대단한 힘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이야기의 진정한 그림자나 깊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전부 네거티브하다. 다만 그것을 어디에서 총체적인 세계와 조정해 가는가, 어디에서 선을 긋는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밸런스 감각이 필요하다.¹⁷⁾

아사하라의 스케일이 단순한 이야기가 네거티브하다는 것을 신자들이 깨닫기 위해서는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를 갖춘 밸런스 감각이 있는 스케일이 큰 이야기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사하라의 이야기는 결국 그의 Paranoid(편집증 환자, 과대 망상적, 병적인 의

17) 무라카미 하루키·가와이 하야오(2003)『가와이 하야오(河合隼雄)씨와의 대화-『언더그라운드』에 대하여』(『村上春樹 全作品1990-2000』講談社 所収) p.207

심)성으로 오염되어 가는 것인데, 그 Paranoid성에 대항하는 유효한 백신으로서의 이야기를 사회가 준비하지 못했다(위의 책, p.208).

사회는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를 갖춘 밸런스 감각이 있는 스케일이 큰 이야기를 백신으로서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일본인은 아직 자유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뛰쳐나가서 혼자서 자유를 가지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은 견디지 못한다. 항상 지시를 기다리는 타입이다. 따라서 일본인에게 교육의 근본은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멋진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다(위의 책, pp.231-232).

상상력은 자유로운 생각을 길러내기도 하고 공포를 길러내기도 한다. 혼자서 자유를 가지라고 해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공포를 느껴버리는 것은 상상력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Commitment(관여)는 현실참가, 관계, 상관, 관여, 참여, 정도 등의 의미이다. 이어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옴진리교에의 정도, 지진 시의 자원봉사 등 집단이 무언가에 관여할 때 폭력과 공포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의 젊은이들도 역시 Detachment(무관심)의 기분은 아주 강하다. 참여하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바보이고 무관심한 것을 쿨하고 보기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1995년에 옴진리교사건과 한신대지진이 있었는데 여기서 큰 반향이 일어나 평소 무관심했던 젊은이들이 많이 관여하게 되었다. 젊은이의 봉사는 예상 외로 많았다. 일본인도 가능한 한 뭔가 참여하고자 했다. 잠재적으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지진과 그 사건으로 표출되었다.¹⁸⁾

단생산사(團生散死), “몽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몽쳐라 아니면 죽음이 다”(Join, or Die) 등은 대동단결(大同團結)하지 못하고 사분오열(四分五裂)이 되면 죽는다는 의미다. 그런데 하루키는 한신대지진 시 자원봉사로 몽친 사람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마음이 일어난다고 했다.

18) 『第1夜 『이야기(物語)』로 인간은 무엇을 치유하는가』 위의 책, p.254

일상적인 상상력을 뛰어넘는 상황이 생기자 비로소 나타났다. 일본인은 어떻게든 참여를 하게 되면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 끈적끈적해 지는 마음이 있다. 모두가 모일 때 누군가 조금 게을러지면 개인의 자유를 허락하지 못하여 너는 사교성이 나쁘다고 말한다. 끈적끈적하게 참여하는 사람이 훌륭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이단시 된다(같은 책, p.255).

뭉치면 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매일 봉사활동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드문드문 나오는 경우 매일 나오는 사람들의 이지메가 시작된다. 개인의 자유를 두고 보지 못하는 것이다. 진흙이나 갯벌처럼 끈적끈적한 덩어리는 쉽게 서로 한 덩어리가 된다.

지렁이 군의 끈적끈적한 공포의 액체는 일본인의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개인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정체성을 이단시하는 마음인 것이다. 따라서 오성의 힘으로 균형을 잃지 않은 올바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Commitment(參與, 關與) 시 출현하는 끈적끈적한 협박과 공포는 오성의 상상력으로 불러일으킨 용기로 퇴치해 가야한다는 것이다. 개구리 군과 가타기리가 상상력으로 서로 도와 지렁이 군의 폭력과 맞서가는 것이다. 상상력으로 신화를 상상해내서 재해를 퇴치하려 하는 것이다.

세계의 바깥 또는 안에 또 다른 상자가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한 이해가 우리들의 세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깊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조직이란 악을 조직 속에 안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가정에서도 그 집 속에 어느 정도의 악을 안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나쁜 짓을 할 리가 없는 인간도 많이 모이게 되면 아주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인간이 머리로 생각을 해서 정합적으로 좋은 것을 글로 써내면 악이 들어오지 못한다(같은 책, p.222).

‘세계의 바깥 또는 안에 또 다른 상자’는 중국의 음양사상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음 안에 양이 있고 양 안에 음이 있다는 면에서. 진정한 조직은 악을 조직 속에 안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악이 조직을 감싸버리게 된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을 글로 써내면 문령(文靈)이 작용하여 악이 선악의 밸런스를 깨고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악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시스템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인상을 내는 가지고 있다. 그것은 독립된 것도 아니며 교환하거나 그것만 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든다. 즉 이쪽에서 빛을 쏘이면 그 그림자가 악이 되고 저쪽에서 쏘이면 그 그림자가 선이 되는 듯한(같은 책, p.225).

태양이 비추는 방향에 따라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는 자연의 이치가 인간의 시스템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태양이 한 곳에서 멈추어 버리면 이상 현상이 발생한다.

좋은 음악에는 슬픔과 기쁨의 그늘 같은 여러 가지 그늘이 있다. 음진리교 사람의 번뇌의 세계는 너무 약하다. 주위 사람과의 연관된 속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주위 세계와의 연결을 포기해 버린다. 규모가 작을 때는 좋은 것을 갖고 있지만, 조직이 커지면 타락이 시작되고 넓은 세계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같은 책, p.228).

태양이 멈추면 또는 지구가 멈추면 해는 계속해서 한 곳만을 비추게 되고 낮은 작렬하는 태양에 모든 것이 메말라가고 밤이 찾아오지 않아 백야가 이어진다. 다시 말해 선과 악이 고정되어 버리면 선은 더 이상 선이 아니라 악이 되고 마는 것이다. 태양이 멈추어 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곳은 점점 더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얼음의 땅이 되어간다. 타락한 곳에서는 생명이 자랄 수 없다. 처음에는 선의 의지로 모였다고 할 지라도 선은 악이 되고 악(번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것이다. 선악 관념이 고정된 조직과 집단은 양지도 음지도 모두 악(타락)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명령을 협의로 집약적으로 내려 그것을 실행시키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전범문제와 닮아 있다. 현대의 음진리교단이라는 존재는 전전의 만주국의 존재와 닮아 있다. 문제는 그곳에 ‘말과 행위의 동일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오족공화(五族共和)¹⁹⁾’라든가 ‘팔굉일우(八紘一宇)²⁰⁾’라는 보기 좋고 아름다운 말만이 점

19) 중국의 辛亥革命 때, 制定을 폐지하고 오족의 공화정치 政체 수립을 목표로 한 표어.

점 혼자 나돌고 그 배후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도의적 공백을 피비린내 나는 리얼리티가 덮고 있었다. 그리고 고도 과학기술의 전문지식과 정책능력을 갖고 국가의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상급의 야심적인 고급기술관료(Technocrat)들은 ‘넓은 세계관의 결여’와 거기에서 파생되는 ‘말과 행위의 괴리’의 늪 속으로 좋은 싫든 빨려들어 갔다(같은 책, pp.239-240).

전전의 만주국은 천황제 그 자체이다. 대동아공영이라는 좋고 아름다운 말만 혼자 나돌고 ‘말과 행위의 괴리’로 양지와 음지가 고정되고 선악이 고정된 천황제 시스템이었다. 전전의 천황제는 음진리교의 선악 즉 음진리교를 따르는 사람만 선인이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었다. 천황제, 음진리교의 가치체계에서 이탈된 사람은 악인이었던 것이다.

현실이란 본래 혼란과 모순을 머금고 성립하고 있는 것으로 혼란과 모순을 배제해 버리면 그것은 이미 현실이 아니다. 언뜻 정합적으로 보이는 말이나 논리에 따라 무난히 현실의 일부를 배제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배제된 현실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잠복하며 부활한다. 현실성을 결여한 말이나 논리는 현실성을 띤(때문에 하나하나 무거운 돌을 끌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나 논리보다도 종종 강한 힘을 갖는다(같은 책, p.242).

한편으로 상상력은 공포의 원인이기도 하다. 한신대지진에 꼭 한 달이 지난 1995년 2월 17일 저녁에 가타기리는 폭력단에 저격을 당하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 공포란 인간이 스스로의 상상력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개구리 군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으므로 주저 없이 상상력의 스위치를 끊고 무게 없는 고요 속으로 빠져들어 꿈속에서 지렁이 군과 싸우는 개구리 군을 도와준다. 가타기리는 개구리 군이 정말로 지렁이 군과 싸워 지진을 멈추게 한 것인지 긴 백일몽의 일부였는지,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부터가 망상의 영역인지 모른다.

모든 격렬한 싸움은 상상력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상상력이야말로 우리들의 싸움터입니다. 우리들은 그곳에서 이기고 그곳에서 집니다.²¹⁾

20) 八方의 멀고 넓은 범위, 곧 세계를 하나의 집으로 함.

무라카미 하루키는 문학적 상상력으로 지진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고, 인생은 이기는 모습이 아니라 지는 모습에서 마지막 가치를 부여받는다고 한다. 상상 속에서 모든 무기를 사용하였고 모든 용기를 내서 어둠 속 지렁이 군에게 가타기리는 밟아서 쓰는 발전기를 있는 힘껏 밟아 빛을 비추었고 지렁이 군은 개구리 군을 감싸며 끈적끈적한 공포의 액체를 끼얹었지만 갈기갈기 찢어버려도 분해될 뿐 죽지는 않는다.

V. 결론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에서의 재해는 천재도 인재도 모두 폭력으로 다루고 있다. 지진은 지렁이 군이 화가 났을 때 휘두른 폭력이었고,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은 아사하라가 화났을 때 휘두른 폭력이었다. 『개구리 군 도교를 구하다(かえるくん、東京を救う)』에서의 재해는 인간의 부도덕에 기인한 것이었다. 스케일이 큰 이야기는 인간의 요철(凸凹), 정부(正負), 음양의 면을 모두 객관화한다. 인간의 악은 요철, 정부, 음양의 밸런스를 잃은 시스템에서 발생한다. 선량한 뜻을 가진 사람도 많이 모이게 되면 자신들의 결함을 배제하는 한쪽으로 치우친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 결함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결함을 객관화해서 보완해 가야 올바른 태도라고 무라카미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천인상관사상이 일본에서는 자연상관사상으로 수용되었다. 인간의 부도덕과 악이 하늘 또는 땅의 재해를 부른다. 사회의 악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스케일이 단순한 선악의 이야기(物語)가 아닌 개인의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스케일이 큰 이야기(物語)를 만들어 거기에 언령(言靈)을 깃들게 하여 악을 껴안아 소멸 시켜야 한다. 움진리교 신자들은 아사하라(麻原)가 쥐어준 스케일이 작은 단순한 이야기(物語)에 자아를 송두리째 내맡겨 버렸다. 사회 개개인이 정합성을 가지고 밸런스를 취한 문령(文靈)과 언령(言靈)이 깃든 이야기(物語)를 써갈 때 악은 다가오지 못한다고 했다.

21) 村上春樹『村上春樹全作品 1990-2000 3 短篇集Ⅱ』講談社, p.220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연스럽게 그의 선조들이 정토종 주지로서 해왔던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염불 대신에, 정합적 상상력에 의한 언령(言靈)를 만들어 고토 카에를 하며 개인적 염불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대화에서 이상한 힘이 나올 때는 천재적인 청취자가 있을 때이고 이야기의 자연스런 흐름을 가능한 한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런 사고의 물길 몇 군데를 열어두고 그 흘러갈 곳을 스스로 찾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독한 영혼의 용기와 정의감을 가진 가타기리와 개구리 군은 이 시대의 영웅이다. 고독한 영혼들이 서로 뜻을 합하는 내용의 스케일이 큰 이야기(物語)를 만들고, 그 이야기에 깃든 문령(文靈)의 힘으로 재해를 막는 것이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소설에 정의와 용기가 있는 올바른 언령(言靈)을 깃들게 하여 세상을 마츠리고토(政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의 문령(文靈)이 재해를 막아 준다는 의미에서, 무라카미의 소설은 곧 무라카미의 신(神)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효순(2007)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태엽 감는 새(ねじまき鳥クロニクル)』를-
현대일본인의 상실감과 노몬한 체험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北原糸子編, 水野章二執筆担当(2006) 『日本災害史』 吉川弘文館, pp.97-98에서 재인용.
村上春樹(1997) 『언더그라운드』 講談社
村上春樹(2003) 『개구리 군 도쿄를 구하다(かえるくん、東京を救う)』(『村上春樹全作品
1990-2000③ 短篇集Ⅱ』所収, pp.197-222, 初出 『新潮』 新潮社, 1999. 12)
무라카미 하루키·가와이 하야오(2003) 『가와이 하야오(河合隼雄)씨와의 대화-『언더그
라운드』에 대하여』(『村上春樹 全作品1990-2000⑦』 講談社 所収) p.207
_____ 『가와이 하야오씨와의 대화-『悪』을 겨안고 산다』(『村上春樹 全作品1990-2000⑦』
講談社 所収) p.230
_____ 『무라카미 하루키, 가와이 하야오를 만나러 가다 第1夜 『이야기(物語)』에서 인간은
무엇을 치유하는가』(『村上春樹全作品1990-2000⑦』 所収)
村上春樹·청취자 손 월시(2005) 『소설가로서 필요한 것은 개별 의견이 아니라 그 의견
이 확실한 기반을 두고 설 수 있는 개인적 作話 시스템입니다』 『夢を見るため
に毎朝僕は目覚めるのです-村上春樹インタビュー集 1997-2011』(2012) 所収,
文芸春秋, pp.384-385
히라노 요시노부(平野芳信) 저, 조주희 역(2012) 『하루키, 하루키』 지학사, pp.16-17
다나베 아키라(田辺章) 『地震のあとで、焚火をおこす-村上春樹『アイロンのある風景』が
映し出すジャック・ロンドン『焚火』』 東洋大学人間科学総合研究所紀要』8, 2008,
pp.152-153
우치다 다쓰루(内田樹)(2010) 『사악한 영혼의 평정법(邪悪なものの鎮め方)』 木星叢書, 바
시리코, pp.22-23
'言霊'(http://ja.wikipedia.org/wiki/%E8%A8%80%E9%9C%8A, 최종검색일 2012. 4.
5)
'시스템'(http://dic.yahoo.co.jp/, 최종검색일 2014. 2. 5)

- ❖ 투고일 : 2014.01.04
- ❖ 심사완료일 : 2014.02.03
- ❖ 게재확정일 : 2014.02.10

Abstract

村上春樹文学における災害
- 「かえるくん、東京を救う」を中心に -

鄭勝云

「かえるくん、東京を救う」における災害の原因は、人間の不道徳という不浄が祟ったためであった。人間の悪に感応して怒ったみみず君は地震を起こそうとする。人間の悪はバランスを崩したシステムから出てくる。いくら善良な意思をもった人でも、たくさん集まるようになると片寄ったシステムを作るようになり、必ず悪を犯す。集団へのコミットメントには暴力という悪が付き纏う。オーム真理教の地下鉄サリン事件は片寄った集団のシステムから発生するしかなかった良い例であった。

中國の天人相關思想が日本では自然相關思想として受容された。人間の不道徳を自然が感応し、災害を下す。従って、災害を防ぐためには人間の悪を洗い流し、浄化するしかない。悪を防ぐためにはスケールの大きな光と陰のバランスの取れた物語が必要である。スケールの小さなアンバランスな物語に悪が宿る。麻原の物語はアンダーグラウンドに隠れていて世の光を見ることができない、スケールの小さい物語である。オーム真理教の信者たちは麻原に与えられたスケールの小さい単純な物語に自我を預けてしまった。もし信者がよりスケールの大きな物語を読んで知っていたら、悪の巣窟から自力で抜け出すことができたはずである。

信者又は社会の個々人には自由な想像力で、正負のバランスの取れた、スケールの大きな物語を身につけていく必要がある。悪をまで抱え込んだスケールの大きな物語には、言霊が宿って悪に働き始める。社会の個々人が整合性を持ったスケールのある物語を書いていくと、文霊と言霊は災害を退けてくれる、と村上春樹は作品で持って語っている。

村上春樹の先祖は浄土宗の住職であったことから、村上春樹も浄土宗の影響を受けていると見ていい。村上春樹は南無阿弥陀仏という念仏の代わりに、整合的想像力に依るスケールの大きな物語の言霊を創り、ことかえをし、村上春樹の固有の自由な念佛をやっていると言える。

村上春樹は、對話から不思議な力が出るのは天才的な聴取者がいる時であるように、物語を書く時は自然な流れを可能な限り邪魔しないで、自然な思考の水路をいくつ

か開けておいて、その流れの行く先を自ら探せるようにするといっている。

個人の孤獨な靈魂の持ち主である主人公の片桐は、かえる君と協力してみみず君を退治する。孤獨な靈魂が互いに正義と勇気で暖かく力を合わせる、というスケールの大きな文靈を宿らす物語こそ、天災と人災を防ぐ道である。村上春樹における小説を書くという行為は、言靈による政^{まつりごと}で悪を治める仕事であって、物語の如何によって災害は防げるといった意味で、村上の小説は村上の神様、と言えるのではあるまいか。

Key Words : 災害(Disaster), 言靈(Language Spirit), 想像力(Imagination), システム(System), スケール(Scale)

